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19일 (음력 11월 13일) 수요일

## ‘한전공대’ 전남은 나주·광주는 3개구 경쟁

### 나주시,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지역 내 3곳 입지 부지로 제안

### 광주 동구 제외 서·남·북·광산구 제안서 접수...3곳으로 압축

한전공과대학(케코텍·Kepco Tech) 조기 설립의 분수령이 될 입지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지제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사실상 나주로 제안부지가 단일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공대 부지 제안은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처음 열린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한전이 각각 3곳씩 제안 받기로 결정된 뒤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이 제시한 공대 입지 기준안에 맞춰 전남도와 진행 중인 공대 제안부지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나주시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나주 지역 내 3곳’을 공대 입지 부지로 제안할 방침이다.

나주지역 내 3곳은 오는 2022년 3월 부분

개교 목표 달성에 맞춰 부지 매입이 용이하고 교통 인프라, 한전 본사와 에너지밸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본사가 소재한 나주와 공대 유치 경쟁에 나선 광주 지역은 5개 자치구 중 동구를 제외한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4개 자치구가 이미 광주시에 부지 제안서 접수를 완료했다.

광주 서구는 매월동 일대를, 남구는 대촌동 도시첨단지구 인근 부지를, 북구는 첨단시험장 부지를 각각 한전공대 부지로 제안했다.

공대 제안부지 4곳 중 ‘북구 첨단 3지구’는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이 전남도 방침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광주 북구와 연대를 통해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 나주시 제안 부지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일 수 있을지 주

목되고 있다.

이들 광주지역 제안부지 4곳은 광주시가 자체 심의를 통해 3곳으로 압축한 뒤 한전에 내년 1월 초까지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차 컷오프’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이 전문 용역사 ‘A.T.Keamey’ (A.T커니)에 발주해 진행하는 공대입지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행 절차와 일정만 한정이 평가되고 있다.

나머지 절차는 용역사가 구성위·기준위·심사위 등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게 될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추진한다.

현재 용역사가 기준위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제안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지 선정 평가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심사위가 1월말까지 부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2022년 부분 개교 목표 달성

을 위해 늦어도 2020년 전반기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학교법인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 진행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용지 보상 절차 진행, 교통·도시가스, 상·하수도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공대 착공 시점에 맞춰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 측의 입장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채택돼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생수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용지보상과 인·허가가 용이한 최적의 입지를 제안하기 위해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제안한 입지가 선정될 경우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철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이학재 의원이 탈당 후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철이 실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뒤따라가느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명했다. 손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탈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한 뒤 철에서 덮으려고 준비부터 라까지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 전남노사실무위,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

### (주)선우 이엔지 선정돼 인증패 전달 전남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기여 공로



전남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위원장 신광교)는 17일 (주)선우 이엔지에 2018 노사협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패 전수식을 가졌다.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전수식에는 신광교 전남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한국노총 전남본부 상임부위원장 및 전남지역 노동계와 광양지역 노조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선우 이엔지(대표이사 주경두)는 전남 기업 중 올해 3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선진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남지역의 우수기업들을 선정하여 노사협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있다.

주경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로자들을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노사간의 공동 이익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 5·18기념재단, 아용산 수치 여사 ‘광주인권상’ 철회 결정

### 5·18기념재단이 미안파 아용산 수치 여사에게 수여한 광주인권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5·18기념재단은 18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시민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4년 아용산 수치 여사에게 수여한 광주인권상과 수상자에 대한 기념재단의 예우를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2015년 이후 미안파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아용산 수치 여사가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안파 내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인권유린에 대해 행동하지 않고 있어 철회 결정은 항의의 의지표명이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재단은 “이 같은 요구에도 계속되고 있는 수치 여사의 비인도적인 방편은 민주·인권의 가치를 신명히 하고 있는 광주인권상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면서 “상의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수치 여사의 광주인권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상자 명단에서 수치 여사를 삭제하며, 5·18기념문화센터 내 벽면 수상자 얼굴 동판도 철회한다.

**KFS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